

작지만 알차다...신생 갤러리 전성시대



오는 6월까지 개관전을 여는 서구 매월동 '목담아트홀'



5일 개관하는 광주시 남구 사직동 '갤러리 씨니'. 김해성, 윤남웅, 전혜숙 작가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햇볕이 점점 따가워지는 6월. 시원한 실내에서 차분히 미술품을 감상하고 더위를 식히기엔 안성맞춤 계절이다. 지역 곳곳에 갤러리들이 문을 열었거나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굳이 작품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부담없이 들을 수 있는 신생 갤러리들을 소개한다.

2일 공식 출범하는 카가갤러리(대표 카가) 소속 3개 신생 갤러리가 2일부터 12일까지 문을 연다.

이번에 개관하는 갤러리는 '갤러리 씨니'(대표 장현우), '101 갤러리'(대표 전근), 담양 '갤러리 드 프로방스'(대표 유지현)이다. 갤러리들은 순차적으로 개관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가는 작품 구매자가 되려면 구입 당시 비용 70%에 재구매 해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 국내미술시장 활성화와 세계 진출을 위한 공동 목표로 모인 갤러리연합이다. 신생 갤러리에 515갤러리(양림동), 소아르 갤러리(화순), 갤러리 해외(동구 학동), 소소 갤러리(화순)가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 사직동 통기타거리에 자리잡은 '갤러리 씨니'는 사직공원 산책길에 잠깐 발길을 멈춰 쉬 수 있는 공간이다. 담양 담빛예술창고 총괄기획감독을 맡고 있는 장현우 작가가 대표다. 약 66㎡(20평) 공간에 지역 유명 작가 작품을 오밀조밀 설치했다. 큰눈을 가진 독특한 인물을 주로 그리는 전현숙, 화려한 색채로 꿈 속 세상을 표현하는 김해성, 어린아이같은 붓놀림 속에 깊은 주제를 담고 있는 윤남웅 작가 등이다. 5일 카가 개관전에는 이들을 비롯해 이설재, 박수만, 윤일권, 김일근, 양재원, 김지준, 신호순 작가가 참여한다. 문의 070-8621-5305.

12일 개관하는 '갤러리 드 프로방스'는 담양 메타프로방스(담양읍 학동리) 내에 위치한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광주에서 의료업에 종사했던 유지현씨가 대표를 맡았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66㎡)지만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과 작품으로 갤러리를 꾸밀 예정이다. 개관전에는 노여운, 정다운 등 지역에서 촉망받는 신진 작가 작품을 전시한다.

유지현 대표는 "갤러리 운영은 처음이라 배우는 자세로 꾸려갈 예정이다"며 "미술을 잘 모르는 관광객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려 마음 여유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10-2602-5120.

카가 갤러리 뿐 아니라 '목담아트홀', '갤러리 5'도 문을 열며 문화 향유기회를 풍성하게 한다.

지난해 11월 광주시 서구 매월동 대동고등학교 인근에 자리잡은 '목담아트홀'(관장 김진희)은 1층 갤러리 겸 카페, 2층 갤러리로 구성된다. 지역에서 조경사업가와 화가로 활동 중인 김진희씨가 운영하고 있다. 주변 식당가에서 식사를 마치고 차와 함께 미술 관람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곳이다. 1층에는 나무를 주로 그리는 김진희 작가 작품을 상설전시하고 2층은 지난 4월부터 서현호 작가를 초청해 개관전을 열고 있다. 개관전은 6월까지 계속된다. 조경사업에 종사하는 김세담씨가 배롱나무, 소나무, 오토나무, 향나무를 이용한 작품을 곳곳에 배치하며 건물전체를 작품화했다. 앞으로는 3층 공간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062-383-9298.

지난 1월 개관한 '갤러리5'(대표 오미숙)는 서구 치평동 갤러리303 아파트 상가 내에 위치한 소규모 전시장소(33㎡)다. 지역에서 추상이나 팝아트 작업을 하는 작가 작품을 주로 다루며 외국 아트페어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오미숙 대표와 남편 이상필 동산대학교 교수가 함께 운영한다. 이 교수는 화가로 활동하며 동산대 문화박물관장을 맡고 있다. 평소에는 이교수 작품을 상설전시한다. 문의 010-8604-999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내일 출범 '카가연대' 소속

3개 갤러리 12일까지 개관

작품 구매 가격 70% 보장

광주 매월동 '목담아트홀'

이달까지 서현호 개관전

치평동 '갤러리5' 1월 문 열어

최미영·노여운 작가 2인전 13일까지 카페 비뉴노와르

최미영·노여운 작가가 '푸른색 기억'을 주제로 13일까지 카페 비뉴노와르(광주시 동구)에서 2인전을 연다. 풍경을 선보이는 두 작가는 '시대의 기억', '풍경의 기억', '사람의 기억', '자연의 기억' 4가지 키워드를 각자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최씨가 출품한 작품 속 모습들은 낯설지 않다. 태양빛이 내리쬐는 숲속 오솔길을 그린 '길', 파도치는 하얀 백사장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우도'는 어디서 본듯하다. 노씨 작품 속 골목길 풍경도 친숙하다. 어느 집 담배락

을 그린 '지나가다', '남겨지다' 등 작품을 통해 골목길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작가 시선이 전해진다.

최씨는 한국미술대전 구상부문 특선 등을 수상했으며 개인전 3회, 2015 광주시립미술관 신년기획전 등 다수 단체전에 참여했다.

노씨는 광주신세계미술제 신진작가상(2014), 무등 미술대전 대상(2009)을 수상했으며 지난날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쉽, 쉬어간다.'를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했다. 문의 062-384-145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최미영 작 '우도'

핫한 축제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키농장 6월호



'예향 초대석' 임권택 감독의 영화 이야기

감성과 자연의 숨결이 가장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공간이 축제의 현장이다. 수년 전부터 가장 핫하게 거론되는 지역 축제를 일컬어 프린지페스티벌이라고 한다. '변두리', '외곽'이라는 뜻의 프린지페스티벌은 1947년 에딘버러 국제페스티벌에 초청 받지 못한 예술가들이 거리에서 공연을 펼친 데서 유래했다.

예향 6월호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을 집중 조명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장은 사천 신청만 하면 누구나 무대에 오를 수 있고 아트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밖에 서울, 제주, 통영 등 개성있는 컨셉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여러 도시들의 프린지페스티벌 소식도 전한다.

기획으로는 목포가 낳은 남도의 가수 이난영을 조명했다. 6월 6일은 이난영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로 목포에서는 토코 콘서트와 강연회, 전시회 등 다채롭고 의미있는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옛가요 사랑모임 '유정전리'는 1933년부터 1963년까지 30년 동안 녹음한 이난영의 노래를 담은 전집 음반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다른 기획 '사람이 브랜드'에

서는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 나혜석의 삶과 예술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식민지 조선의 여성이라는 신분을 뛰어넘어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당대의 지식인이었다. 수원에 자리한 나혜석거리에는 가부장적 사회에 저항했던 그녀의 꿈과 시대의 아픔이 남아 있다.

'예향 초대석'은 지금까지 102편의 영화를 만들었던 거장 임권택 감독을 소개한다. 1962년 '두만강아 잘 있거라'로 데뷔해 2015년 '화장'에 이르기까지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했던 그를 만나 영화 이야기와 후속 제작 계획 등을 들었다.

'남도의 장인들'에서는 필장(筆匠) 문상호 씨를 만나 47년 붓과 함께 한 인생사를 들었다. 광주무형문화재 제4호이기도 한 그는 광주 백운동 일대에서 제작된 진다리봇의 시조라는 평가가 따른다.

'소문난 예술교육 현장을 찾아서'에서는 직장인들이 점심과 바꾸는 문화적 포만감을 선사하는 세종예술아카데미를 소개하고 '남도美味樂'에서는 굴비, 모시알송편, 상사화, 단오제, 백수해안도로로 유명한 영광을 찾아 역사와 문화, 맛의 세계를 들려준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품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 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 400여점 전시

키농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6년 6월호

5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당신의 무대,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끼가 출렁대는 토요일의 문화난장
"특별해야 축제다" 도시마다 매력 찾기
전당 문화벨트에 생기, 청년예술에 희망을

기획 **이난영 탄생 100주년**
'목포의 눈물' 히로인
조명하는 기념사업 활발

남도美味樂 **전천히 밀려오는 절산바다 노을**
감칠나는 굴비한정식과 청보리 한우
500년 이어온 단오제

전시 리뷰 **'한지의 순수함으로 빛어낸 존재들의 풍경'**
소빈 조각전

소문난 예술교육 현장을 찾아서③
문화적 포만감 선사하는
세종예술아카데미

노충훈의 꿈의 여행④
시간의 조각칼이 새겨놓은 풍경
미국 유타

한지의 순수함으로 빛어낸 존재들의 풍경
소빈 조각전

예향이 만난 이 사람
2016광주세계펜펜페스티벌 추진위원장 김택환
9월에 'KIA' 복귀하는 유격수 김선빈

예향 초대석

남도 닮은 영화 거장 임권택
"영화가 녹아 인생 되고,
인생이 녹아 영화 되네요"

남도의 장인들⑥
진다리봇 전통 이으며
갈필·죽필 복원한 필장 문상호

사람이 브랜드⑥
자유와 예술의 불꽃같은 삶
화가 나혜석

문화 화제
맨부커상 수상한 작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 화제

해외 문화
'나뭇잎 사업' 통해
노령화 침체 극복한
일본 카미카츠마을

정유소의 스포츠 인생이드림
외국인 선수 그들의
인권은 존중받고 있는가?

문화 화제
2016광주비엔날레,
광주 곳곳에서 예술을 펼친다

한창호의 사(私)미필⑥
알렉산더 소쿠로프
<프랑코포니아>

스타 데이트
"내가 사실 이런 사람인데, 실감하며 연기"
tvN '다이하이프렌즈' 드센 임아 역할 고두심